

(1교시)

▷ **흐름 패턴 공간과 동시성**

직선 : 가장 전형적인 흐름 패턴 공간

건축에서의 흐름 패턴 공간 추구 (합리주의)

-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 : '직선이 인간의 길이고 구부러진 것은 당나귀의 길이다.'
- 바우하우스(Bauhaus)의 건축가들 : 국제양식(International style)을 발달시킴.
-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가 표준형 정립.
- ⇒ 특징) '질적인 변화가 없다' 즉, '동일성(identite)'의 추구를 전제함.

사진6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두 번째 작품, <하우스 랑에(Haus Lange)>

※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 : (1887-1965), 스위스 태생 프랑스 건축가로 “건축은 인간의 생활을 담는 기계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김. 근대 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

※ 바우하우스(Bauhaus) : 1919,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가 미술학교와 공예학교를 병합, 설립한 조형학교. 건축을 주축으로 예술과 기술을 종합하려는 것을 주된 이념으로 내 걸었다.

※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 : (1886-1969), 독일 건축가로 건축기술의 공업화, 새로운 건축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임. “예술은 과학과 같이 합리적인 면의 표현이다.”

▷ **흐름 패턴과 매끄러움은 상대적이다**

메타동일성의 개념 : 동일성을 더 복잡하게 진화시킴. (예, 물결 모양은 직선에 비해 매끄럽지만, 그 자체 일정한 규칙을 가짐으로써 흐름 패턴을 구성한다.)

⇒ ‘동일성의 진화’는 매우 중요한 개념. 『차이와 반복』에서 들뢰즈는 기본적으로 동일성을 인정, 근본적인 차이의 흐름 속에서 동일성을 2차적인 것으로 보았다. 단, 차이를 보지 못하고 고착화 되는 것, 나아가 정치적으로 국가장치로 화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흐름 패턴 공간과 매끄러운 공간의 상관관계 : 변증법적인 대립이 아닌, 겹쳐있는 것.

▷ **연속적 변이 (continuous variation)**

“상수와 변수의 어떠한 배분도 벗어나는 연속적 변주다.”의 풀이

- 매끄러움에 대한 기본 정의
- 상수 : 중심점. 흐름 패턴 공간의 필수 요소.
- 연속적 변이 : 매끄러운 공간에 대한 가장 핵심적 개념. ‘강도(intensity)’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 (예, 드뷔시의 음악)

▷ 국가장치와 과학

국가장치(appareil d'Etat) : 흠 패인 공간의 정치적 형태

시각과 권력의 관계 : 모든 장치는 시각적 요소를 지닌다. 따라서 시각은 때로 권력적이다.

(예, 진시황의 군현제, 현대의 주민등록증 등)

동시성(simultaneity) : 어떤 사물이 동시적으로 나에게 보일 때, 그 사물이 내 시야(視野)에 들어옴. 시선의 권력은 이를 통해 성립된다. (예, 감옥에서의 감시자와 처벌자의 관계)

⇒ 미셸 푸코, “시각이란 알게 모르게 권력을 함축한다.”

⇒ **색면(色面)회화**의 외형적 특징은 캔버스가 크다는 것. 숭고미의 추구.

사진7 마크로스코, <오렌지와 노랑>

※ 색면회화 :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에 걸쳐 일어난 미국 회화의 한 경향. 1950년대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미술가인 바넷 뉴먼(Barnet Newman), 마크 로스코(Mark Rothko) 등이 주도.

(2교시)

“제국이라는 수직적 장치와 도시라는 등방적 장치가 있다.”의 풀이

- 중앙집권적 국가의 권력적 체제 (예, 프랑스는 전형적인 중앙집권국가. 모든 것이 파리에 모여 있다.)

“기하학은 물리학의 문제와 국가의 작업이 만나는 곳에 있었다.”의 풀이

- 물리학→힘→중앙집권적 조직→기하학의 발달 (예, 17C 프랑스의 절대왕정 발달시기, 기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함.)

▷ 유목과학의 특징

편위(일탈) : 등질성이 있는 공간에서 어떤 하나가 일탈하는 것. 에피쿠로스학파가 말하는 카오스(Chaos)가 현대의 카오스 이론으로 발전한다.

⇒ **클리나멘(klinamen)**, 존재론적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차이, 내재적 일탈.

⇒ **프리고진(Prigogine, Ilya)**, ‘혼돈으로부터의 질서(order out of chaos)’

나선(소용돌이, 난류) : 어지러운 흐름. 현대 물리학의 주요 개념.

⇒ 콩트의 **사회물리학** : 세계를 측정의 관점에서 보고 조작하려는 시도. 흠 패인 공간의 입장. (예, 카프카의 소설, 『성』의 주인공 K는 측량 기사로 성을 측정(합리화)하려 했지만 좌절함. 현대성을 잘 상징하고 있다.)

유목과학의 특징 : ‘합리화하는 과학’이 아닌, ‘**기존의 합리성을 넘어서려는 과학**’. 그러나 유목과학을 통해서 더 풍요로운 합리성이 도래할 수 있다.

▷ 기호체제와 개인

서구 근대사회에서의 노동, 시간, 그리고 국가 장치의 개념

- ‘노동’의 개념 : 국가 장치와 잉여 가치를 전제. 노동이 있어 잉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잉여가치가 전제되므로 노동이 있는 것이다.

- 시계의 발달이 근대성의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참고도서-이마무라 히토시의 『근대성의 구조』, 시계로 근대성을 해명한 책)

근대사회와 대비되는 미개인들의 사회

- 사유 방식의 차이 : 경제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축적을 거부했던 것.
 - 국가장치와 잉여가치란 개념이 없었으며, 오히려 국가가 탄생하지 않기 위한 많은 장치를 갖고 있었다.
- ⇒ 결론적으로, 국가장치가 기호들의 체제를 만들고 그것이 권력의 체제라는 것이 문제. 매끄러운 공간을 찾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찾는 것과 통한다.

<Q&A>

시간을 제거한 공간위주의 철학

- 구조주의
- E. 메이에르송(20C 프랑스의 과학자이자 철학자. 프랑스 철학의 실증과학적 성격을 증명했다.), “과학이란, 어떠한 형태로든 시간의 제거를 함축한다.”